

취디산(許地山)의 <상인의 아내(商人婦)>에 나타난 식민담론 양상 연구

— 재현과 정체성 문제를 중심으로

成玉禮*

<목 차>

1. 서론
2. 취디산의 난양서사와 재현의 문제
 - 2.1 문제 해결 장소로서의 난양
 - 2.2 난양(南洋), 인도의 재현과 실제
3. 유동하는 정체성
 - 3.1 여성 이주자 시관과 정체성 유동의 양상
 - 3.2 시관 정체성을 통해 본 문화적 혼종화
4. 결론

1. 서론

문학을 통해 사회의 변혁을 꾀했던 1910~20년대 중국의 젊은 작가들 가운데 취디산은 중국현대문학사에서 비교적 적게 언급되는 인물이다. 문학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취디산에 관한 설명은 그가 '문학연구회'의 일원이었으며, 종교적인 색채를 띠는 작품과 중국 밖 동남아시아¹⁾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 그리고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을 많이 썼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중국현대문

* 翰林大學校 中國學科 講師(aihongzhu@daum.net).

1) 작품 및 자료 속에서 동남아시아 일대를 가리키는 말로 '난양'을 직접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본고에서는 '난양'을 '동남아시아'와 함께 사용하되, 논자들마다 사용한 표현을 따르고자 한다.

학의 발전에 있어서 문학 안팎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던 여타 작가와 비교하자면 이 같은 쉬디산에 대한 설명은 비교적 간단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당시에는 가볍게 여겨지거나 혹은 반발을 사기도 한 쉬디산의 창작 상의 특징은 오늘날 세계 속에서 급부상한 중국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난양'이라고도 불리는 동남아시아를 배경으로 한 그의 창작은 이 지역에 큰 영향을 미쳤던 고대 제국 중국과 관련하여 중화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식민담론의 한 양상²⁾을 이해하는 데 의미 있는 작품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사상계몽을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근대성 담론을 주제로 작품 활동을 했던 당시 대다수의 현대문학작가들과 달리, 쉬디산의 작품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난양에 관한 서사는 대륙 밖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문학연구회의 일원으로서 그 역시 중국현실이 당면하고 있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작품 속에 표현하였지만, 표현 방법과 문제의식은 다른 작가들과는 분명 달랐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타이완 출신, 중국 대륙으로의 이주, 그리고 이어진 미얀마에서의 교사생활, 인도, 영국, 홍콩에서의 생활과 같은 국제적이었다 할 수 있는 개인적 경험과 연결될 수도 있다. 이러한 개인적 경험은 과거 제국이었던 중국이 망국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사실에 집중하면서 서구를 모델로 중국의 근대화를 추구했던 작가들과 다르게 그를 '세계적 시야'를 가진 작가가 되게 하기도 했다.

난양으로 표현되는 동남아시아를 작품의 공간적 배경으로 한다는 사실 외에, 쉬디산 작품의 주요 특징으로 자주 언급되는 종교적 색채 혹은 깨달음³⁾

2) 이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학자로 스수메이(史書美)를 들 수 있다. '화어계'의 입장에서 쉬디산 작품을 분석한 스수메이의 주장은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언급하도록 한다.

3) 작품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인 종교적 서사라는 측면은 이미 문학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바 있다. 황수지(黃修己)는 그의 저서인 《중국현대문학발전사》에서 쉬디산의 초기 작품이 보이는 종교적 색채 및 종교적인 갈등 해결 방식에 대해 서술하면서, 쉬디산의 작품은 당시 현실에 있어 비판적인 제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받는 쪽은 늘상 자기 자신의 해탈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며, 이것이 '작품의 비판력을 크게 약화시켰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黃修己 저, 고대중국어문연구소 역, 《중국현대문학발전사》(서울: 범우사, 1992), 130쪽) 또 다른 연구자인 천평위안(陳平原)은 쉬디산 작품의 종교적 색채가 특정 종교의 교리적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라 분석하였다. 그는 신문학 초기의 또 다른 작가인 수만수(蘇曼殊) 창작의 종교적 색채와 쉬디산의 것을 비교하면서 쉬디산은 특정 종교 교파

그리고 여성에 대한 깊은 이해 역시 이 시기 지식인들이 작품 속에 담아낸 근대성 담론의 양상과는 다른 것이었다. 이 같은 작품의 특징은 당시의 현대문학가들이 추구하던 ‘문학혁명’, ‘문학의 근(現)대화’와 무관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는데, 창조사의 일원이었던 청팡우(成仿吾)가 쉬디산의 <명명조(命命鳥)>를 비판하면서 쓴 비평문을 통해 그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작품은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중략... 최근의 창작 가운데 유일한 이향(異鄉)의 exotic한 작품이다. 작품의 배경은 이향이며, 작품의 인물 역시 이향적이다. 원래 참된 예술은 지방색채로 인해 손상되지 않으며, 또한 국민예술의 단조로움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 같은 이향적 정조도 사실은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소설은 불행히도 지방적이고 시대적인 색채로 가려졌으며, 쓰고 있는 것은 지방과 시대의 얇은 막 위에 나타나는 가상이다. 작품은 이 얇은 막 아래의 실재를 우리에게 조금도 알려주지 않는다. 가장 불행한 사실은 작품으로부터 이 얇은 막을 찢으려는 작가의 어떠한 노력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기법 상 구식일 뿐만 아니라, 관찰 역시 구식이다. 작품의 인물은 우리에게 이향적이며 인성을 발견할 수 없는 구식 인물이기도 하다. 열광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 외에 우리는 모든 현상이 인성의 여러 본능에서 발전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현상의 재현에 잠시 만족할 수 없으며, 작가가 현실 이면의 인성의 본능을 발전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요구한다. 이 작품은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완전히 실패했다. 그가 예상한 종교적 색채는 구원의 힘을 갖지 못했다.⁴⁾

인용문에서 청팡우는 <명명조>를 비판하고 있는 주요 근거로, 문학의 근대화를 추구하던 동시대의 작품들과 달리, 사건의 필연성 부재, 인물의 형상화 실패 등으로 인해 현실의 문제를 제대로 재현하지 못했다고 비평한다. 게다가 작품이 ‘지방적이고 시대적-구식-색채로 가려져 있다’는 점 역시 비판의 주요한 내용을 이룬다. 청팡우의 이러한 비판이 지나치게 편파적이라고 보는 엔민(顏敏)과 같은 오늘날의 연구자는 쉬디산의 작품이 근대성보다 지방성을 강조

의 한계를 넘어서서 종교적인 융합을 작품 속에 표현해내고 있으며, 그것은 결국 보편적 가치를 지니는 우리의 문체와 연결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陳平原, <論蘇曼殊, 許地山小說的宗教色彩>, 《陳平原小說史論集·上》(河北: 河北人民出版社, 1997), 10쪽)

4) 成仿吾, <<命命鳥>批評>, 《成仿吾文集》(齊南: 山東大學出版社, 1985), 62쪽.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⁵⁾ 청팡우가 보기에 현대적 작품의 경우 인간의 본성과 인성의 해방 문제 및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현대적 기법으로 담아내야 하는데, 쉬디산의 작품은 오히려 '지방과 시대의 얇은 막 위에 가상'만이 나타날 뿐, 실재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렇듯 신비로운 분위기로 치부되었던 쉬디산 작품의 지방적 색채는 당시 세계 조류의 변화 속에 처해있던 중국의 상황을 살피게 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 근대성 담론이 다양한 형태로 수용되었음을 살피게 한다. 다시 말해, <명명조>를 포함한 쉬디산의 난양서사는 근대성보다 지방성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기보다는, 지방성의 형태로 근대성을 드러낸 작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상인의 아내>를 통해 쉬디산의 난양서사가 어떻게 당시의 근대성 담론을 표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서구 제국의 식민지가 된 동남아시아를 배경으로 어떻게 근대 중국 작가에게 영향을 미친 식민담론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상인의 아내>는 경제적인 이유로 남편을 이국(異國)으로 떠나보낸 한 여성이 남편을 찾아 나섰다가 겪게 되는 고난 및 고난 속에서 얻게 되는 인생에 대한 깨달음 혹은 종교적 깨달음을 주요 서사내용으로 한다. 이 작품은 쉬디산 작품의 주요 특징들인 동남아시아라는 공간적 배경, 여성주인공을 중심으로 하는 여성 서사 그리고 종교적 특징이 모두 나타나는 작품이자, 화어계 연구의 선구자인 스수메이에 따르자면 종족주의와 제국주의적 서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스수메이는 쉬디산을 '세계적 시야'를 가진 작가라 부르면서, 세계 여러 곳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쉬디산이 다양한 종족을 대체적으로 공평하게 묘사하고, 여성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를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수메이는 <상인의 아내>에 중국인 외의 종족을 타자화

5) 顏敏은 그의 <異域話語的重新建構—許地山的南洋敘事及其意義>(《中國比較文學》, 2013年 第3期)에서 청팡우의 비평이 '지방성으로 근대성을 덮어버렸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고 보았다. 그는 나아가 쉬디산의 온화한 종교적 태도와 입장이 급진적인 반봉건의 조류와 맞지 않았던 것으로, 청팡우의 비평은 지나치다고 보았다. 오히려 쉬디산의 '개방적이고 평화적인 문화심리' 속에는 '혼합성(雜糅性)'을 띤 동방정신의 역량이 나타난다고 분석한다. 104-105쪽.

하여 표현하는 종족주의적 태도가 나타난다고 보는데,⁶⁾ 이는 그녀가 작품을 통해 중국의 제국주의적 태도를 비판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본고에서는 이 같은 스수메이의 분석을 검토하면서 <상인의 아내>에 나타나는 종족주의에 기반한 타자화의 흔적을 토대로 서구 제국주의 식민담론의 양상을 찾아보고자 한다. 화어계의 이론적 바탕 위에서 작품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스수메이는 상인인 린인차오(林陰喬)의 난양행과 여주인공이자 린인차오의 아내인 시관(惜官)이 말레이 여인이라는 현지처를 바라보는 시선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그 속에 나타나는 중국인 중심이라는 종족주의적 태도 및 타자화의 문제를 주로 다루었다. 그녀는 제국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식민지배와 피지배 관계라는 측면에서 주로 보고자 했는데 그것은 그녀의 화어계에 근거한 이데올로기⁷⁾적 입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녀의 화어계 입장이란 '중국성의 패권과 동질성을 비판'하는 데서 비롯한다.⁸⁾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시아를 포함하는 아시아에 잔존하는 중국의 제국주의적 태도와 언급의 문제가 그녀의 분석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녔던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식민담론의 양상을 서구 제국주의와 동남아시아 현실과의 관계에서도 찾아보고자 한다. 작품은 중국 근대 지식인인 쑤디산에 의해 창작되면서 이 같은 실제 현실을 생략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으며, 나아가 재현과 서술 밖의 현실과의 대조를 통해 작품의 식민담론과 근대성 담론과의 관계를 살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과거 제국인 중국과 현재 제국인 서구의 사이에 끼어 있다는 당시 동남아시아의 특수한 현실이 스수메이의 기존 분석과 함께 동남 아시아 식민담론의 역사성을 살필 수 있게 할 것이다. 즉 식민담론이 어떻게 근대 중국 지식인에게서 새롭게 표현되고 있는지, 그것이 근대성 담론과 어떻

6) 史書美, 《反離散: 華語語系研究論》(臺北: 聯經出版社, 2017), 112쪽. 스수메이는 <상인의 아내>가 버림받는 한인 아내 입장에서의 서사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녀가 말레이 여인을 대하는 종족주의적 무례함이 아무런 문제시되지 않았다고 분석한다.

7) 여기서 이데올로기는 특정 정치적 입장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스투어트 홀의 “예술, 법률, 경제활동, 그리고 개인적 집단적 삶의 모든 구형 형태에서 은밀하게 구현되는 세계관”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스투어트 홀, 임영호 편역, 《문화, 이데올로기, 정체성》(서울: 컬처북, 2021), 513쪽.

8) 史書美, 《反離散: 華語語系研究論》, 7쪽.

게 결합되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 같은 작품의 서사적 특징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쉬디산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이해와 재현에서 나타나는 괴리와 생략의 문제이다. 앞서 언급했듯, 당시는 동남아시아가 서구 제국의 식민지배 하에 놓여있던 시기였지만 작품 속에는 이에 관한 언급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쉬디산의 작품 속에 재현된 현실과 실제 사이에 존재하는 변형은 그의 현실 인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며, 그 인식은 쉬디산이라는 개인 작가가 사회의 문화 지형을 구성하는 이데올로기, 담론과 맺고 있는 관계의 결과⁹⁾이기도 할 것이다. 근대성 담론이 팽배한 시공간 속에서 쉬디산이 그려내는 동남아시아 서사는 근대 지식인으로서의 작가의 인식을 보여줄 것이다. 또한 작품 주인공 시관의 정체성이 보이는 다원적인 양상은 정체성이란 단일하고 고착된 것이 아닌 유동적이고 변화가능하며 혼성화된 것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시관 정체성의 이러한 모습은 그녀의 이주민 신분과 밀접하게 연관되기도 한다. 쉬디산의 서사를 본격적인 이주민 서사로 볼 수는 없겠으나 작품 속 주요 인물들이 이주민으로 그려지고 있는 관계로, 이를 통해 1920년대 초기의 이주민 서사의 한 양태를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관의 정체성을 통해 유동성과 불안정성을 살핌으로써 종족을 포함한 모든 정체성이 늘 변화의 과정 속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식민담론의 양가성 문제 역시 살피볼 것이다.

2. 쉬디산의 난양서사와 재현의 문제

에드워드 사이드는 모든 재현이 재현자의 언어와 문화와 제도 속에 뿌리박고 있으며 이데올로기적 개념들에 구체적인 형식을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보았

9) 스투어트 홀, 임영호 편역, 《문화, 이데올로기, 정체성》, 517쪽.

다. 또한 오리엔탈리즘이란 문화적 담론에서 제국주의의 목표를 선전하기 위해 이용하는 동양 연구의 지배적이고 체계모니적 기획이라고 보았다.¹⁰⁾ 서구 소설 속 동양은 서양의 지식과 종속의 대상인 '타자'이며 이러한 서사 속에서 서양은 자신을 타자와 분명하게 구분되는 권력의 장소이자 중심으로 그려낸다는 것이다. 문학적 재현은 이 같은 기획의 텍스트적 구성물로, 쉬디산의 <상인의 아내>는 이 타자의 위치에 동남아시아를 놓고서 이루어진 재현이라 할 수 있다. 사이드가 분석대상으로 삼은 서구 소설과 비교하자면 이 작품은 중국의 근대 지식인인 쉬디산이 재현자인 자신을 둘러싼 언어, 문화, 제도와의 연관관을 보여준다는 사실에서 차이점을 갖는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자의 유사성이 더 눈에 띄는데, 영국 소설 속 식민모국 영국과 식민지 인도와의 관계는 <상인의 아내> 속 중국과 난양과의 관계 속에 유사하게 그려지고 있으며, 서구 소설이 동양을 타자로 창조하고 있듯이 이 작품에서는 난양이 타자로 설정되어 있을 뿐이다. 이 같은 유사성은 <상인의 아내>에서 식민화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식민담론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게 한다. 가장 먼저 그 연관성은 난양이라 불리는 동남아시아가 당시 대륙에 거주하던 중국인에게 있어 일종의 '문제해결'의 장소로 여겨진다는 사실에서 나타난다. 작품이 배경으로 삼고 있는 싱가포르는 비록 오랜 기간 대륙 중국의 영향 하에 놓여있었으나, 서구 제국이 확장되던 19세기 말부터는 영국의 식민지화를 경험해야 했다. 작품 속의 또 다른 공간적 배경인 인도 역시 당시 대표적인 영국 식민지였다. 그런데 쉬디산이 작품 속에 재현하는 난양이 이러한 현실과 다르게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은 작품 속에 표현된 식민[지배]담론을 근대 중국 지식인이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10) 빌 애쉬크로프트·팔 알루와리아 지음, 윤영실 옮김, 《다시 에드워드 사이드를 위하여》 (서울: 엘피, 2005), 132쪽.

2.1 문제 해결 장소로서의 난양

고대 중국역사 속에서 동남아시아는 제국 중국의 영향을 받는 지역임이 분명했다. 그러나 서구의 탐험과 확장의 역사는 오늘날 동남아시아 지역인 난양을 서구 제국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었다. <상인의 아내>에서 시관의 남편인 린인차오가 재기를 꿈꾸며 떠난 싱가포르 역시 1942년 일본에 의해 점령되기 전까지 영국의 식민지였다. 싱가포르에 화인 공동체가 존재했으며 그들이 영국의 싱가포르 지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하더라도, 싱가포르는 분명히 영국의 지배를 받던 곳이었다. 하지만 작품은 싱가포르를 중요한 사건의 공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영국 식민지라는 상황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여주인공의 남편인 린인차오가 싱가포르로 건너가 성공한 상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서사의 중요한 내용이 되면서 작품은 당시 영국과 싱가포르의 관계가 아니라 중국과 싱가포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관계로 스수메이는 작품에서 제국주의적 서사의 흔적을 중국과 싱가포르의 관계에서 찾고 있으며, ‘과번(過番)’이라는 표현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든다.

그는 집에서 한 석 달을 쉬었습니다. 제가 모아놓은 돈이 생각보다 넉넉해서 생활은 그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종일토록 밖에 나가 밀천으로 쓸 돈을 빌리러 다녔지만, 안타깝게도 그를 신뢰하는 자가 없어서 한 푼도 빌리지 못했습니다. 초조해진 그는 번으로 건너갈(過番, 민남인들은 난양으로 가는 것을 ‘번으로 간다’고 말한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¹¹⁾

이와 같은 린인차오의 난양행에 대해 스수메이는 “우리는 그가 자주 다루는 난양 이주라는 사건 즉, 중국인의 남방 탐험과 확장에 대한 서사화가 바로 에드워드 사이드가 영국소설에서 보아냈던 일종의 [제국주의적] 언급이라는 무

11) 許地山, <商人婦>, 岳凱華 盧付林 編, 《許地山作品精選》(武漢: 長江文藝出版社, 2003), 21쪽. 괄호 속은 참조한 텍스트 표시를 그대로 옮김.

의식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¹²⁾고 분석한다. 제국주의 확장 시기 창작된 영국소설은 식민지를 야만적인 타자로 그림으로써 ‘영국의 가치와 태도가 중심적이고 보편적이라는 가정이 해외영토들에 대해서도 확고한 관점을 유지’하게 만들었으며, 영국과 세계에 관한 인식 및 태도를 강화하는 데 참여하고 도움을 주고 기여하였다.¹³⁾ 그런데 <상인의 아내> 속 중국과 난양의 관계는 이와 유사한 제국주의적 태도와 언급을 보여주고 있으며 스수메이는 이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던 것이다. 린인차오는 대륙에서 맞닥뜨린 경제적 문제를 ‘과번’으로 표현된 싱가포르로 건너가서 해결하려 하며, 다른 쉬디산의 난양 관련 작품에서도 모국에서 갖가지 문제에 처한 이들이 난양으로 건너가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이 자주 등장한다. 이들 작품에서 싱가포르를 포함하는 난양은 영국소설 속 식민지와 마찬가지로 모국에서의 손실을 보상하는 곳인 보상 식민지로 표현되고 있다.¹⁴⁾ 권위를 가지고 중심에 자리한 식민 모국을 위해 수동적이고 종속된 식민지에서 경제적 보상을 얻는 것은 식민담론에서 자연스럽고 합법적인 것으로 그려진다. 그러므로 쉬디산이 중국과 난양의 관계를 식민본국과 문제가 해결되는 장소로서의 식민지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은 난양을 종속성과 열등성을 가진 유사 식민지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작품의 난양에 대한 제국주의적 언급과 태도를 찾아볼 수 있는 또 다른 내용으로 스수메이가 들고 있는 예는 여주인공 시관과 말레이 여인에 관한 다음과 같은 서사이다.

저는 집안의 꾸밈새가 매우 화려한 걸 보았습니다. 주인장 아내라는 사람은 말

12) 史書美, <反離散: 華語語系研究論>, 112쪽.

13) 빌 애쉬크로프트·팔 알루와리아 지음, 윤영실 옮김, <다시 에드워드 사이드를 위하여>, 176-177쪽.

14) 스수메이는 <상인의 아내>뿐만 아니라, 쉬디산의 또 다른 대표작 <위관(玉官)>에서도 유사한 구조를 찾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범죄자가 난양으로 건너가는 서사가 등장한다. 스수메이는 이를 ‘중국 상상 속의 난양’이라 부르며, 한족 중국인들의 생계를 위한 혹은 부를 축적하기도 했던 공간이었다고 바라본다. 史書美, <反離散: 華語語系研究論>, 108-113쪽.

레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나와서 저에게 살짝 고개만 끄덕여 인사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녀의 모습은 그다지 공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난양의 규범을 알지 못했기에 그녀와 마찬가지로 인사를 했지요. 그녀는 머리에 다이아몬드와 구슬을 두르고 있었으며, 몸은 보석과 금으로 꿰어진 옷을 걸친 채 검은 얼굴을 받치고 있었는데 더할 나위 없이 추악했습니다.¹⁵⁾

스수메이는 말레이 여인에 대한 시관의 멸시어린 시선이 작품 속에서 무례한 것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작가 쉬디산의 종족주의적 태도를 분석한다. 시관의 말레이 여인에 대한 묘사는 식민담론에서 흔히 보이는 전형적인 타자화로, 양자의 관계가 우위와 열등의 차별 속에 놓여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작품은 말레이 여인에 대한 타자화를 외양의 추함에다 비도덕적 행위를 더함으로써 타당한 것으로 표현해낸다. 주인공 시관의 도덕적 우위는 말레이 여인의 인신매매 주도라는 비도덕적 행위로 인해 더욱 부각되며, 이것은 작가 쉬디산의 난양에 대한 인식과 연관된다. 스수메이가 쉬디산의 이러한 난양서사 속에서 찾은 '중국 상상 속 난양'은 보상 식민지이자 열등한 타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스수메이의 이 같은 분석을 쉬디산의 난양 서사에 대한 다른 분석 내용과 비교한다면 쉬디산의 난양서사가 갖는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쉬디산의 난양 서사에 대한 연구는 대표적으로 다음의 두 양상으로 나눌 수 있다 생각된다. 가장 일반적인 이해는 쉬디산의 난양 서사를 당시 신문학 작가들이 가지고 있던 시대적 임무와 연결시켜 분석하는 경우로, 쉬디산의 작품은 동남아시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은 본토 중국을 돌아보고 중국인의 국민성을 진작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견해이다. 리명(李朦)과 쑤량하오(孫良好)는 <쉬디산 글 속의 난양 형상 — <명명조>와 <그물 짓는 거미>를 중심으로(許地山筆下的南洋形象——以<命命鳥><綴罔蝸蛛>爲中心)>¹⁶⁾에서 '쉬디산 글 속의 난양 형상에서 그가 찾고 탐구하고 있는 것은

15) 許地山, <商人婦>, 22-23쪽.

16) 李朦, 孫良好, <許地山筆下的南洋形象——以<命命鳥><綴罔蝸蛛>爲中心>, 《溫州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5年9月 第18卷 第5期.

중국을 되돌아보고, 본토를 되돌아보고,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임이 확인'된다고 말한다. 또한 이 글은 쉬디산의 종교적 색채에 관해, 천평위안의 '세속화된 종교'라는 분석은 특정 종교의 교파를 넘어서 '사랑' '아름다움'과 같은 보편적 가치에 대한 추구를 의미하며, 한편으로 그것은 고난에 처한 중국의 문제를 해결할 '처방'이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분석은 쉬디산의 난양서사는 난양이라는 지역이 갖는 특수성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중국본토에 대한 이해와 필요를 난양에 비추어 살피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으로, 직접적으로 난양을 타자화하여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난양이라는 타자를 통해 올바른 자아상을 획득하고자 하는 의지를 찾을 수 있게 한다.

쉬디산의 작품 속 난양을 중국의 현실을 살피기 위한 대상으로 설정하는 이들의 이해와 다르게, 또 다른 연구자인 엔민(顏敏)은 쉬디산의 난양서사에서 난양은 오히려 중국과 대등한 지역으로 그려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역담론의 새로운 구축 — 쉬디산의 난양서사와 그 의의(異域話語的重新建構) — 許地山的南洋敘事及其意義>에서 쉬디산의 난양서사에서 종족중심주의를 찾아내려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주장한다.¹⁷⁾ 엔민의 글은 쉬디산의 난양서사에서 난양은 '감상의 의미나 유토피아적 의미를 가지지 않은', '남국인들이 분투하고 온 힘을 다해 살아가는 현실적 공간'이자 '고난이 이어지는, 떠돌고 떠나가는 생존의 공간'이기 때문에, 결코 '문명 대 자연이라는 이원대립적인 시각 속에 자리매김할 수 없는 곳'이라고 주장한다. 엔민의 분석은 쉬디산의 난양서사 속 난양이 '타자'의 위치에서 그려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밝히는 데 주력한다. 식민담론 속에서 자주 보이는 논리가 바로 식민대상을 야만으로 식민주체를 문명으로 이원대립시키는 것인데, 쉬디산의 난양서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엔민은 쉬디산의 난양서사가 서구 제국주의의 난양에 대한

17) 顏敏, <異域話語的重新建構——許地山的南洋敘事及其意義>, “몇몇 논자들이 <상인의 아내> 속 일부 이족 묘사에 근거하여 쉬디산에게 중국 우월의식이 있다고 질책하는데, 나는 그것이 일부로 전체를 평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반성 없이 중서 대립이라는 논리를 남용하여 쉬디산 소설 속의 '중국과 난양의 관계를 사고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102쪽)라는 표현은 스수메이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이해와는 다르다면서 그것을 동양사유의 특징으로 귀결시킴으로 인해 서구적 사유와 동양적 사유의 대립을 다른 형태로 반복한다는 혐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이들 연구의 분석 대상인 쉬디산의 난양서사는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식민담론이 서구 대 비서구가 아니라 중국 대 난양의 관계에 적용됨으로 인해 일종의 변형을 일으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작품에 표현된 1920년대 초 난양에 대한 중국의 상상이란 식민담론의 중국식 변형이라는 의미로 해석가능하다는 것이다. 난양과 말레이 여인과 같은 난양인에 대한 차별을 바탕으로 행해지는 타자화는 중국과 난양 간의 관계를 식민모국과 식민지의 관계와 유사하게 만들지만, 실질적으로 이 시기 동남아시아는 대부분 서구 제국의 식민지였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구 제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중국 역시 타자였다. 서구는 동양을 '타자'로 창조함으로써 자신을 정의하고 자기 정체성을 강화해왔으며,¹⁸⁾ 그렇기 때문에 영국소설 속 인도-〈상인의 아내〉에서 중요한 공간-는 열등한 지위를 가진 식민지로 그려졌다. 그런데 쉬디산의 〈상인의 아내〉는 이 시기 동남아시아와 인도를 지배하던 서구 제국의 모습을 작품 속에 담아내지 않고 있으며, 스수메이의 분석 역시 화어계를 살피는 데 치우쳐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분석하지 않고 있다. 서구 식민지로서의 동남아시아와 인도라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생략과 변형은 변화하던 동남아시아의 역사적 상황과 연관된 것이기도 하지만, 근대 지식인 쉬디산의 이데올로기적 입장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2 난양(南洋), 인도의 재현과 실재

“실제 세계는 재현 바깥에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는 재현을 통해서만 그것이

18) 빌 애쉬크로프트·팔 알루와리아 지음, 윤영실 옮김, 《다시 에드워드 사이드를 위하여》, 130쪽.

무언가를 뜻하거나 ‘의미하도록’ 만들 수 있다. 또한 재현이란 반영적이라기보다는 구성적이며, 따라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영향력을 갖는다.”¹⁹⁾ <상인의 아내> 속 사건 발생의 주요 공간인 싱가포르와 인도 그리고 선상이라는 구체적 공간은 시관 삶의 곤경과 곤경의 극복이라는 서사의 공간적 배경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시관이 겪는 사건은 이들 공간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데 그 연관성은 공간 자체에 대한 세밀한 묘사보다는 인물과 작가가 갖고 있는 공간에 대한 인식을 통해 주로 드러난다. 취디산은 시관이 겪는 야만적 인신매매의 경험이 일어나는 배경으로 난양을 설정하였고, 그 결과 시관은 타의에 의해 인도로 건너가게 된다. 그런데 시관이 겪는 주요한 사건들의 배경인 싱가포르와 인도는 당시 영국 지배 하의 식민지였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 알고 있었을 근대 지식인 취디산이 작품 속에서 재현하는 이들 공간은 영국 지배 하의 식민지라는 불편한 현실과 전혀 연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 같은 사실은 작가의 작품 구성 의도와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작품 속에 재현하지 않은 난양과 인도의 현실은 중국에 종속된 것으로 작품 속에 구성되거나 상상되고 있는 난양의 모습과 함께, 20세기 초 중국 근대 지식인의 세계인식으로부터 식민담론과 근대성 담론이 연관되어 있는 모습을 찾을 수 있게 한다.

<상인의 아내>에서 주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곳은 싱가포르와 인도로, 당시 이곳은 모두 영국의 지배를 받던 곳이었다. 작품 속 주요인물인 린인차오나 시관은 동남아시아로 떠났던 화인 이주민이라 할 수 있는데, 동남아시아 화인 이주민의 존재는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대륙 남자 린인차오에게 있어 재기와 기회의 땅으로 그려진 싱가포르의 경우, 이른 시기부터 화인이 이주했던 지역이었다. 1819년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을 무렵, 이곳의 인구 구성은 중국인과 말레이인이 대부분이었고, 이후에도 이들이 인구구성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였다. 작품은 먼저 이 같은 상황을 린인차오가 싱가포르에서 맞이할인 새로운 아내가 말레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보여준다. 또한 당시 싱가포르가 동남아시아 무역의 거점지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 역시 작품에서 린

19) 제임스 프록터 지음, 손유경 옮김, 《지급 스투어트 홀》(서울: 엘피, 2006), 233쪽.

린차오가 상인으로 성공을 거두었다는 내용과 시관을 첩으로 산 인도 남성의 직업이 모포 무역상이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인도 남성은 싱가포르에서 사업상의 성공을 거둔 뒤 시관이라는 '전리품'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려 한다. 이러한 사실적 내용은 쉬디산이 동아시아의 현실을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쉬디산의 문학적 재현 속에서 난양과 인도의 가장 중요한 현실인 서구 제국 지배하의 식민지라는 사실은 삭제되고 있으며, 중국인(화인) 이주자가 처한 현실적 상황 역시 제대로 그려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의 재현은 작가 쉬디산의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살필 수 있게 한다.

화인 이주민과 관련해서 작품에서 얘기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내용은 린인차오의 싱가포르행과 관련한 것으로, 그가 어떤 신분으로 싱가포르로 갔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부유한 상인이 될 수 있었던가라는 것이다. '문학은 사실주의적 재현에 대해 문학이 미묘하게 변형시킨 것에서 생겨나는 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있기'²⁰⁾ 때문에, 변형의 형태라 할 수 있는 간략화와 생략은 작가 쉬디산의 이데올로기적 입장과 현실 인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작품은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한 린인차오가 재기를 위해 싱가포르로 건너갔으며 당시 많은 중국인이 재기를 위해 난양으로 건너가 성공을 거둔 뒤 고향의 본처를 잊어버렸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많은 중국인들이 건너간 난양 즉 동남아시아는 영국 식민지가 되기 이전에 종종 인도 문화나 중국 문화의 아류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서구가 이 지역을 식민지화하면서 점차 그 영향에서 벗어났었다. 린인차오가 재기를 위해 건너간 '번' 싱가포르 역시 1819년 스탬포드 레플즈에 의해 개항된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인 1942년 일본에게 점령되기 전까지 줄곧 영국의 식민지였다.²¹⁾ 작품은 싱가포르를 시관의 시선을 통해 이국적 풍광을 가진 곳으로 묘사하는 한편, 린인차오의 저택이 '반 중국 식 반 서양식'이며 그의 복식이 서양화되어있다는 사실만을 서술할 뿐, 영국

20) 데이비드 허다트 지음, 조만성 옮김, 《호미 바바의 탈식민적 정체성》(서울: 엘피, 2011), 116쪽.

21) 임채완 등 지음, 《화교 디아스포라의 집단적 기억과 재영토회》(경기: 북코리아, 2014), 74-75쪽.

식민지 싱가포르의 현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오히려 싱가포르와 중국의 관계가 부각되면서 싱가포르를 마치 중국의 식민지인 듯 착각하게 만든다. 이 같은 재현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중국 지식인인 취디산이 여전히 제국 중국과 변 싱가포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다른 하나는 당시 중국 근대 지식인들이 세계를 인식하는 데 있어 긴밀하게 얽혀있는 식민담론과 근대성 담론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통해, 서구 제국과 아시아 식민지와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여타 국가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다양한 형태로 식민담론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인물 형상에 있어 19세기 말 20세기 초 화인 이주자의 실제 삶이 생략되어 있다는 사실에서도 찾아진다.

역사가 오래된 싱가포르로의 화인 이주는 일찍이 원나라 때에도 그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원나라 때 이미 중국의 환저우(泉州)와 싱가포르 사이에 통상이 이루어졌으며, 당시 현지인과 통혼하여 현지에 동화되어 살고 있는 중국인이 존재했었다.²²⁾ 오래 전 이주하여 싱가포르의 중국인 사회에서 상층부를 차지했던 이들은 이후 제국의 조력자가 되어 영국인들의 식민지배를 위한 유용한 집단이 되었다.²³⁾ 작품의 창작시기를 근거로 하자면, 20세기 초에 이주한 것으로 보이는 린인차오는 “싱가포르가 동남아시아 식민지 무역의 거점이 된 이후, 자유무역정책에 의해 다수의 페라나칸 상인들과 유럽 무역상들이 싱가포르에 정착하면서”²⁴⁾ 필요로 하게 된 노동자였던 신객(新客)이었을 가능성이 크며, 이들은 주로 쿨리 노동자였다고 할 수 있다. 무일푼인 그가 탄중 파가르에서 잡화상 가게인 이허청(義和誠)을 열기까지의 10년의 세월이 시관의 10년의 기다림으로 대체되면서 화인 이주자가 싱가포르에 정착하기까지의 고난

22) 임채완 등 저, 《화교 디아스포라의 집단적 기억과 재영토화》, 74쪽. 현지에 동화되어 살고 있는 이들 중국인을 ‘페라나칸(Peranakan)’이라 부른다.

23) 필립 A. 쿤 지음, 이영옥 옮김, 《타인들 사이의 중국인-근대 중국인의 동남아 이민》(서울: 삼산, 2014), 136-138쪽.

24) 임채완 등 저, 《화교 디아스포라의 집단적 기억과 재영토화》, 76쪽.

은 서술의 영역 밖으로 벗어나게 된다. 여송연을 입에 물고 상아 지팡이를 들고서 마차를 타고 움직이는 성공한 상인이 된 린인차오는 싱가포르 이주자의 성공적 사례 중 하나로 그려지고 그의 성공은 싱가포르가 보상식민지라는 사실을 재확인시킨다. 화인 이주자에 대한 이러한 서술은 탄중 파가르를 변형적으로 재현함으로써 난양을 중국인들의 재기와 성공이 보장되는 곳으로 완성시킨다. 화인의 싱가포르 이주를 연구한 저서에 따르면, 탄중 파가르는 원래 '19세기 중반부터 싱가포르로 이주한 수천 명의 화교 및 인도인 부두 노동자들로 이루어진 씨족공동체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19세기 중반 선박산업이 성장하면서 부두가 운영되기 시작했고, 부유한 중국인들과 아랍 상인들이 모여들었으나, 한편으로는 빈곤한 노동자의 확산으로 인구과잉, 오염, 아편 및 매춘과 같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도심 빈민가로 쇠퇴해갔던 곳이었다.²⁵⁾ 그러므로 무일푼의 린인차오가 탄중 파가르에서 성공한 상인이 되었다는 결과만으로 보자면 린인차오의 난양 이주관 쉬디산 등 근대 중국 지식인들의 난양에 대한 상상을 바탕으로 구성된 것으로, 실제 화인 이주자의 삶과는 적지 않은 괴리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에서 린인차오는 가게의 점원에게 주인 나으리로 불리는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이 역시 당시 '상인, 세금 청부인, 도시 건설인, 장인, 영농인 등의 중국 이민자들이 동남아시아 식민지 체제의 확립에 필수적인 존재'로서 식민주의자들의 현지 통치에 중개역할을 담당했다²⁶⁾는 현실을 가리고 있다. 난양의 실재와 문학적 재현 사이의 이 같은 괴리는 시관의 서사를 성공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서술의 기법적 측면으로만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영국 식민지인 싱가포르와 20세기 초 화인 이주자의 고통스러운 삶이나 서구 식민지에서 그들의 역할이 작품 속에서 생략됐다는 사실은 쉬디산이라는 근대 지식인이자 근대 주체가 갖고 있던 이데올로기가 문학적으로 재현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인식은 쉬디산이라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기 중국 근대 지식인의 세계 인식 및 중국

25) 임재완 등 저, 《화교 디아스포라의 집단적 기억과 재영토회화》, 114-115쪽.

26) 필립 A. 쿤 지음, 이영옥 옮김, 《타인들 사이의 중국인-근대 중국인의 동남아 이민》, 137-138쪽.

사회의 주요 담론과 연결되는 것이기도 했다. 즉, 대상에 대한 '지각이 담론적 속박의 한계 내에서 형성'²⁷⁾된다는 푸코의 담론에 대한 견해로 다가가자면, 취디산의 난양서사는 동일 시기 중국 지식사회에 존재하던 식민주의 담론과 근대성 담론의 긴밀한 연관 양상²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 근대 지식인들은 서구 제국주의의 확장에 위협을 느끼고 반제국주의를 외쳤으나, 자신들의 위치를 식민지화된 동남아시아 및 인도의 처지와는 다른 것으로 보았으며, 동남아시아를 여전히 제국인 중국의 문화적 영향 아래 놓인 아류로 보았던 것이다.²⁹⁾ 그러므로 화인 이주자의 삶에 있어 고통스러운 양상이 생략되어야 했으며, 그들의 고통은 식민지배 하의 종속된 피식민자의 고통이 아니라, 근대적 주체로 거듭나기 위해 겪는 고통으로 형상화될 필요가 있었다. 고대 제국으로서의 경험과 근대화화에 대한 추구는 당시 중국 지식인들로 하여금 근대성 담론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서구의 식민지배담론을 재생산하게 만들었다.

알려져 있다시피, 20세기 초 중국 사회에 형성된 주요 담론은 근대성 담론이었다. 사회의 근대화와 문학의 근대화는 당시의 계몽운동에 있어서 주요한 실천 내용이자 방향이었다. 청팡우는 취디산의 글이 이러한 문학가의 시대적 사명과 거리가 있다고 비판했지만, 취디산의 작품은 오히려 근대성 담론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의 난양을 배경으로 하는 서사들은 종교 서사적이고 이국 배경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주인공의 자아실현을 주제의식으로 삼고 있는데, 그것은 근대적 자아의 확립과 연결되는 주제로 볼 수 있다. 작중인물들은 봉건적 가정 제도가 강제하는

27) 사라 밀스, 김부용 역, 《담론》(서울: 인간사랑, 2001), 82-83쪽.

28) 여기서 말하는 식민주의 담론과 근대성 담론의 긴밀한 연관은 '식민지 근대성'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식민지 근대성이 식민지적 특수성을 전제한 개념이라 한다면 본고에서 살피려는 것은 식민주의 담론과 근대성 담론이 불가분의 관계로 호미 바바가 말한 '근대가 가진 식민성'이라는 표현과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9) 밀턴 오스본 지음, 조홍국 책임 번역 감수, 《한 권에 담은 동남아시아 역사》(서울: 오름, 2000), 21쪽. 영국의 식민지가 되기 이전, 동남아시아의 역사는 종종 인도 문화나 중국 문화의 아류로 이해되었다. 서구가 이 지역을 식민지화하면서 동남아시아는 점차 중국과 인도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나, 독자적인 문화를 가진 지역이라는 인식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갖가지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통제와 소외를 종교적 인고나 소극적 저항과 같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벗어나고자 하며, 결국에는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이끌어 나갈 하나의 주체로 서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쉬디산의 난양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들은 당시 중국 현실이 안고 있던 사회의 근대화라는 문제를 이국적 서사를 통해 표현해냈다는 리멍과 쑤량하오의 평가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상인의 아내>는 쉬디산의 난양 서사가 갖는 근대성 담론과의 연관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여준다. 그것은 주인공 시관이 독립된 삶의 주체가 되는 과정에서 서구 근대지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과 연관된다. 시관은 인도로 건너간 뒤 서구의 근대 지식을 수용하게 되며, 그것을 바탕으로 교사라는 직업을 갖게 된다. 인도인 남편의 죽음 이후 가출한 시관이 독립적 삶을 꾸려나가는 데 강력한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은 서구 근대지식과 기독교라는 종교이다. 남성에게 예속된 삶을 버리고 더 이상 자신의 여성성에 기대지 않고서 새로운 삶을 찾아야겠다는 시관 앞에 나타난 엘리자베스의 가족은 혼혈 아들로 인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시관이 인도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기반을 마련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준다. 그런데 시관이 교사라는 직업을 갖게 된다는 사실은 그녀의 자립적인 삶의 기반이라는 의미 외에, 근대 교육을 통해 식민담론을 재생산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는 의미도 갖는다. 이렇게 근대적 주체가 된 시관은 식민지배자를 대신해 식민담론의 재생산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제국의 식민지 인도에서 교사라는 신분정체성을 갖게 된 근대적 주체 시관의 정체성은 이주자라는 정체성으로 인해 식민담론과 더욱 복잡한 관계를 맺게 된다.

3. 유동하는 정체성

자아/타자라는 이분법을 기반으로 하면서 정체성을 불변하는 확정적인 것이라고 보는 기존의 이해는 정체성이란 만들어진 것이며 불확실성, 모호성, 유동성 등을 특징으로 한다는 오늘날의 이해로 바뀌었다. 정체성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탈식민 이론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³⁰⁾ 자아와 타자 간의 차이를 확정적이고 영속한 것으로 보는 관점이 식민담론의 대표적인 인식이기 때문이다. 식민담론은 '이데올로기적으로 타자성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고착성의 개념에 의지'³¹⁾하여 인종적·문화적인 위계화를 달성하기 때문에, 정체성이 유동적이고 변화한다는 인식은 식민담론이 만들어낸 제국주의의 윤리 도덕적 우위와 이에 기반한 식민대상의 타자화라는 고착된 인식을 흔들 뿐만 아니라 그것의 불가능함을 역설해준다. <상인의 아내>에서 시관은 중국인에서 인도인으로의 정체성 변화과정을 겪게 되며, 이러한 변화과정은 그녀의 이주민, 여성이라는 정체성과 어우러져 정체성의 다원성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정체성이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그리고 시관의 유동적인 정체성은 작품에 나타나는 식민담론이 양가적임을, 즉 식민담론이 불안한 근거 위에 존재한다는 사실 역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작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정체성과 관련한 서술은 식민담론의 가장 일반적

30) 호미 바바는 피지배자의 지배자에 대한 '흉내'가 갖는 작용을 중시했는데, 그는 피지배자의 흉내가 지배자로 하여금 자신의 불완전함을 보게 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그것이 갖는 양자 간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일방적이고 수동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부각시킨다. 흉내는 지배자에게 그들의 모습을 되돌려 보이게 하며, 이 되돌려진 모습은 지배자로 하여금 '항상 미끄러지는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자신의 불분명한 직관을 생각해 보게끔 강요한다'고 주장하였다. '지배가 가진, 모든 것을 한눈에 보게끔 하는 같은 시대의 시선'은 고정된 정체성의 차원에서 작동하지만 끊임없이 변화를 인정하도록 강요받기 때문에 '되돌려진 모습은 정체성이 역사적으로 변화한다는 측면을, 정체성의 지속적인 미끄러짐을 말'한다. 데이비드 허다트 지음, 조만성 옮김, 《호미 바바의 탈식민적 정체성》, 124-125쪽.

31) 호미 바바 지음, 나병철 옮김, 《문화의 위치》(서울: 소명출판, 2016), 159쪽.

인 인식인 종족주의에 기반하여 말레이 여인을 타자화하는 내용으로, 그것은 식민담론의 정체성 이해를 고스란히 반복한다. 스수메이가 분석했듯이 말레이 여인을 검은 얼굴의 추한 인물로 인식하는 시관의 모습은 중국과 남양 사이에 존재하는 자아/타자 간의 뚜렷한 구별 및 타자를 주변적이고 종속적이며 열등한 존재로 인식한다는 의미에서 타자화의 양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녀가 인도에서 경험하는 소외와 타자화는 자아/타자의 이분법적 경계가 상황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확정적이지 않고 불안하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또한 시관이 마침내 획득하는 근대적 주체라는 자아상이 그녀의 이주민 정체성 및 성별 정체성의 부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작품의 내용은 식민담론과 근대성 담론에 내재하는 모순을 살피게 한다.

3.1 여성 이주자 시관과 정체성 유동의 양상

작품에서 여주인공 시관은 중국, 싱가포르, 인도, 선상이라는 공간적 배경 속에서 신분 변화를 경험하는 인물이다. 시관의 신분 변화는 어떤 일정한 정체성 집단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하의 위치 변화가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때로는 성별을 뛰어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시관은 정체성의 변화를 체험하는, 정체성의 유동을 보여주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인 상인의 아내에서 인신매매로 인한 인도인 남성의 첩으로, 그리고 혼혈아의 어머니이자 근대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로, 그녀의 변화는 그야말로 무쌍하다 표현할 수 있다.

필립 A. 쿤은 근대 중국의 동남아 이주를 다룬 그의 저서 《타인들 사이의 중국인》에서 중국 이주 혹은 이주민의 특성을 분석하는 가운데 그것을 그들의 사회 문화적 특징과 연관시켜 강한 체류의 성격을 지닌다고 말한 바 있다. 이때 가족 혹은 가구의 개념은 반드시 물리적으로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공간적으로 확대된 가구’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³²⁾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동남아시아로 이주한 중국인들은 자신이 타지에서 얻은 이익을 당연히 고향에 있는 가구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물리적으로 먼 거리는 자신이 여전히 가족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꽤 오랜 기간 화인 이주민의 디아스포라적 특징을 이루었다. 이와 같은 분석에 기대자면, 린인차오의 싱가포르행은 원래 체류적 성격을 띤 이주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싱가포르에서 말레이 여성과 결혼함으로써 고향의 본처인 시관을 잊게 된다. 남성에게 종속된 여성 신분을 가진 시관의 이주는 가구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체류 및 이후 귀향을 목적으로 했던 남성들의 것과는 달랐다. 남편을 찾기 위해 잠시 고향을 떠났던 시관의 여행이 영구적인 이주로 바뀌고 중국인에서 인도인으로 변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그녀의 이주가 체류와는 다른 것임을 보여준다. 중국 남부지역에서 싱가포르, 그리고 인도로 이어지는 시관의 이동은 그녀로 하여금 타문화와의 접촉을 통한 외형적 변화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정체성마저 변화시킨다. 중국인이자 중국인 남성의 아내라는 신분은 인도인 남성의 중국계 아내로 바뀌게 되고, 그녀의 거주지 이동은 그녀가 지닌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인식과 도덕 및 규율에 대한 이해를 현지의 문화와 뒤섞이게 만든다. 이 같은 문화적 뒤섞임 속에서 그녀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한편, 소외와 타자화 역시 경험하게 된다. 인도인 남편의 집에 함께 거주하는 여러 첩들과 시관의 관계는 일차적으로 보자면 시관이라는 개인이 겪는 고난으로 해석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중국인 여성이 이주한 지역인 인도에서 겪게 되는 종족주의적 타자화와 소외의 양상이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시관이 인도의 무슬림³²⁾ 문화에 젖어드는 과정에서 그녀가 겪게 되는 강제와 억압은 그녀의 이주민 위치를 상기시키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므로 <상인의 아내> 속 시관이 경험하는 싱가포르의 파티에서 느끼는 낯섦과 주눅들, 인도의 인도인 남편 집에서 당하게

32) 필립 A. 쿤 지음, 이영옥 옮김, 《타인들 사이의 중국인 — 근대 중국인의 동남아 이민》, 43-44쪽.

33) 본고에서 살피는 내용은 종교로서의 이슬람 문화의 측면보다는 이슬람 교도의 문화적 양상이 주된 대상이므로, 이슬람 교도라는 의미를 가진 무슬림으로 통일적으로 사용한다.

되는 다른 첩들의 꺾박은 타지에서 겪게 되는 이주민의 타자화 경험과 연관된 이야기로 읽어낼 수 있으며, 타자화의 주체가 타자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역시 찾아보게 한다.

그러나 작품의 전반적인 서사는 근대 지식인 쉬디산의 근대화에 대한 욕망이 시관의 자아 실현과 근대 주체로의 변화를 통해 표현된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있다. 작품에서 시관의 유동적인 정체성은 근대 주체라는 정체성 형성으로 귀결되는 듯 보이는데, 전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분이라 인식되는 시관이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살 것을 각오하는 다음의 장면은 이러한 내용을 확인시켜준다.

하늘의 못 별들이 연이어 그들의 빛을 거둬들였지만, 셋별만은 동쪽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셋별을 볼 때 마치 그 빛으로부터 어떤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시관, 앞으로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남자를 유혹하는 여인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밝은 것들은 사람을 유혹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세요. 못 별들 가운데, 저는 가장 먼저 나와서 당신들에게 여둠이 곧 닥칠 거라 알려드립니다. 제가 가장 늦게 사라지는 것은 당신들이 태양의 빛을 어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밤의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별입니다. 당신은 저를 당신 마음 속 친절한 경고자로 여기도록 하세요.” 셋별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형용하기 힘든 감사와 기쁨이 넘쳐흘렀습니다. 이후 셋별을 보기만 하면, 특별한 감동이 생겨났지요.³⁴⁾

시관이 더 이상 자신을 ‘남자를 유혹하는 여인’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각오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근대적 자아의 각성과 유사하다.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부정하고 근대적 주체로 거듭나고자 하는 시관의 의지는 이 작품이 근대적 자아의 각성과 자립이라는 근대적 가치를 주요 주제로 삼고 있다고 여기게 한다. 그리고 작가 쉬디산이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 바가 근대성 담론과 연관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한다. 이 같은 계몽과도 같은 깨달음 이후 시관의 자립 과정 속에서 근대 지식이 맡은 중요한 역할은 작가 쉬디

34) 許地山, <商人婦>, 29쪽.

산이 작품을 통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시관은 기독교도인 이웃을 만나 부녀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근대적 지식을 습득하여 이를 재생산해내는 교사가 된다. 작품의 후반은 근대적 자아이자 주체로 거듭 나고 있는 시관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그려내고 있는데, 여기에는 더 이상 작품 전반부의 끈경이 지속되는 시관의 상황은 그려지지 않는다. 자기 삶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각성은 근대 지식의 도움으로 더욱 확고하게 변하여 마침내 시관으로 하여금 자신을 '여자 로빈슨'과 같은 존재로 여기게 만든다.

“제가 뭐 그리 똑똑하겠어요. 이 길은 어둠 속에서 계시자가 저에게 열어주신 것일 뿐이지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가장 감동적이었던 책이 《천로역정》과 《로빈슨 표류기》였답니다. 이 두 책이 저에게 커다란 위안을 주었으며 모범이 되었지요. 저는 지금 여자 로빈슨과도 같습니다.”³⁵⁾

흥미롭게도 인용 속에서 시관이 언급하는 두 책은 서구 제국주의 확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서사라고 평가되는 책들이다. 서구 제국주의 확장에 있어서 외부세계에 대한 개척정신을 강조한 《로빈슨 표류기》에 대해 에드워드 사이드는 일찍이 ‘이 소설이 머나먼 비유럽 지역에 자신을 위한 영지를 건설하는 어느 유럽인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은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³⁶⁾ 또한 서구 제국주의의 확장 속에서 기독교가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 역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로빈슨 표류기》의 주인공이 기독교와 영국을 위해 신세계를 통치하고 개간하는 일들이 ‘해외 확장의 이데올로기’와 연관된다는 사실³⁷⁾은 여자 로빈슨을 자칭하는 시관이 식민지에서 서구 근대와 식민지 건설의 조력자가 될 것임을 시사해주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그녀는 어디까지나 서구 식민담론 속에서 타자인 현지 조력자에 불과하다.

35) 許地山, <商人婦>, 31쪽.

36) 에드워드 사이드 저, 김성곤·정정호 옮김, 《문화와 제국주의》(서울: 도서출판 창, 2021), 23쪽.

37) 에드워드 사이드 저, 김성곤·정정호 옮김, 《문화와 제국주의》, 143-144쪽. 사이드는 찰스 모라제의 ‘소설은 서구 사회를 동반하며 사실 서구 사회의 정복의 일부’라는 말을 빌려 소설서사가 제국주의적 태도와 언급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한다.

시관은 '여자 로빈슨'이 될 것을 선언하지만 그녀가 여자 로빈슨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해 보인다. 왜냐하면 로빈슨으로 형상화되는 식민지배자는 서양인 남성이기 때문으로, 시관 자신의 여성 성별에 대한 부정은 이에 대한 무의식적 인지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시관의 근대적 주체가 되려는 각오 속에 간과되고 있는 보다 중요한 사실은 그녀의 중국계 인도인이라는 이주자 신분 정체성이다. 이 사실은 시관의 성별 정체성과 함께 영국 식민지에서의 그녀의 삶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준다. 쉬디산은 시관을 근대성 담론 속 근대적 자아를 실현하는 인물로 설정하였지만, 작품은 서구 식민지 개척에 있어서 근대성 담론이 갖는 모순을 드러낸다 할 수 있다. 자아와 타자의 분명한 구별을 토대로 형성된 근대인의 정체성은 서구의 동양에 대한 타자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으며, 식민담론은 이를 고착화 영속화하려 한다. 쉬디산의 작품 속에서 식민담론이 근대성 담론과 함께 표현되는 것은 그가 서있던 20세기 초 중국의 담론 세계에서 당연한 현실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관의 정체성이 유동적이며 변화한다는 사실 끝에 그녀가 이주민이라는 정체성을 얻게 된다는 사실은 그녀의 정체성이 영원한 불안의 상태에 처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3.2 시관 정체성을 통해 본 문화적 혼종화

식민담론의 양가성이 밝히는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일관된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이 타자를 전제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며 이 타자란 서구의 식민주의적 시선에 의해 결코 온전히 '보여질 수 없는 것'³⁸⁾이라는 사실에서 시작된다. 식민담론이 원하는 것은 피지배자에 대한 지배인데 이 지배는 피지배자가 지배자보다 열등하다는 차이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안정적이고 최종적인 구분이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식민지배

38) 호미 바바 지음, 나병철 옮김, 《문화의 위치》, 15쪽.

권력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식민담론이 안정적인 지배를 위해 피지배자인 타자에게 부여하는 정체성은 포착할 수 없는 타자의 진정한 정체성과는 다르며, 이로 인해 지배자가 타자를 정형화하려는 노력은 실패하게 된다. 탈식민주의 이론가인 호미 바바에 따르면 식민담론의 양가성은 ‘이러한 불안이 억압받는 피지배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틈을 열어 준다’는 데서 비롯된다.³⁹⁾ 쉼디산의 <상인의 아내>는 근대적 자아의 각성이라는 드러난 주제에도 불구하고, 주인공 시관의 신분 변화를 통해 정체성이란 인물이 처해있는 문화, 언어⁴⁰⁾, 제도 등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자 유동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이 작품은 시관의 정체성 형성이 혼종화를 중요한 성격으로 한다는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이질적인 것들로 이루어지는 정체성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게 할 뿐만 아니라, 시관이 인도사회에서 이주민이라는 이질적 존재로 남게 된다는 사실 역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혼종화는 식민담론의 양가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작품은 서구 제국주의 지배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지배자의 위치에 중국을 놓음으로써 서구 제국을 모방하는 중국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주인공 시관은 서구 근대 지식을 통해 근대인이라는 정체성을 획득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서사 속에 중요하게 서술되는 정체성의 변화과정은 그녀가 최종적으로 근대적 주제라는 정체성을 획득한다 하더라도 정체성이란 유동하는 것이며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처럼 근대적 자아의 각성이라는 주제의식 속에서 정체성의 유동성 및 혼종화 역시 살펴볼 수 있는 관계로 작품은 작가의 의도와는 다르게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든다. 즉, 시관의 정체성을 통해 정체성의 유동성과 혼종화를 찾아보게 한다는 것이며 그것은 식민담론의 양가성 문제와 연결된다. 작품

39) 데이비드 허다트 지음, 조만성 옮김, 《호미 바바의 탈식민적 정체성》, 26-27쪽.

40) 작품에서 시관은 중국문자에 무지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그녀가 익히게 되는 문자는 벵골문자 및 아랍문자와 부녀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아마도 영어로 짐작되는 문자이지, 중국 어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의 귀향은 더욱 어려운 것으로 그려진다. 이 사실은 어문의 학습이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한다.

에서 표현되는 혼종화는 다음과 같은 서술을 통해 나타난다. 먼저, 시관의 정체성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혼종화로, 그것은 유동성과 함께 이뤄진다. 두 번째는 시관의 이주민 정체성을 통해 살필 수 있는 혼종화이다.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관의 신분 변화의 양상은 정체성의 유동성을 보여주는 한편 그 과정 속에 혼종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정체성이란 여러 조건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작품은 먼저 시관의 신분변화 과정인 중국인 아내에서 인도인의 아내로, 그리고 다시 근대적 주체인 교사로의 변화를 통해 나타낸다. 작품은 특히 시관이 인도인 남편의 집에 들어갔을 때 겪는 문화적 혼종화를 다음과 같은 외양의 변화 및 이름의 변화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아후에는 저를 리야라고 불렀습니다. 저의 전족을 풀게 했으며, 코에 구멍을 뚫어 다이아몬드 코걸이를 달게 했죠. 그가 말하길, 그들의 풍속에 의하면 모든 결혼한 여자는 코걸이를 달아야 하는데, 그것이 부인의 표식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는 또 좋은 ‘커얼타(이슬람 여성의 상의)’, ‘마라무(가슴 가리개)’ 그리고 ‘아이짜(바지)’를 입게 했습니다. 이후 저는 한 명의 무슬림 부인으로 변했습니다.”⁴¹⁾

시관에서 리야로의 변화는 그녀가 무슬림 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외양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시관은 아그리마의 도움으로 벵골어문과 아랍어문⁴²⁾을 익히게 되는 한편 무슬림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겪게 된다. 게다가 부녀학교로의 진학과 기독교 가정과의 교류 및 기독교도인으로서의 변화 역시 그녀의 정체성이 다양한 문화의 혼종화 속에서 구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같은 혼종화로 인해 작품은 근대적 주체임을 강조하

41) 許地山, <商人婦>, 25쪽.

42) 시관은 자신의 비극적 운명이 중국어문을 모르는 데서 촉발되었다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벵골어문과 아랍어문을 익히게 된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다. “또한 방글라데시 글과 아랍 글을 읽게 했습니다. 저는 제가 편지를 쓰지 못했기 때문에 인 오라버니에게 빌미가 잡혀서 오늘날 이 지경에 이르게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던 당시, 열심히 글자를 익히려 했지요. 그녀는 아무런 학식이 없었지만 저의 선생님이 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아그리마에게서 일 년을 배운 뒤 마침내 글자를 쓸 줄 알게 되었답니다!”, 許地山, <商人婦>, 25쪽.

는 시관의 언술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정체성 인식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며, ‘자족적이고 비역사적인 본질에 의해 특징지어진’ 정체성⁴³⁾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킨다.

이러한 변화의 최종 종착지가 근대적 주체이기 때문에 정체성의 유동이 어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근대적 주체가 된 시관은 여전히 이주자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시관의 이야기를 전달하던 화자 ‘나’는 시관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권하게 되는데, 귀향은 모든 이주자에게 있어 안정성을 회복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하지만, 작품은 시관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알려줌으로써 그녀가 영원히 귀향할 수 없는 이주자에 머무를 것임을 암시한다.

나는 돌아가서 알아낸 상황을 시관에게 전하고서 중국으로 돌아가라고 권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영원히 돌아갈 수 없어요. 제가 이 어두운 피부색의 아이를 데리고 돌아간다면 사람들은 저를 비웃겠지요. 게다가 저는 중국 글을 전혀 모르니 돌아간들 굶어죽기 밖에 더하겠습니까? 싱가포르에서 며칠 머물면서 남편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만나지 못한다면 인도로 돌아갈 수밖에요.....아, 지금 저는 이미 인도인이 되었답니다!”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그 어떤 말도 꺼낼 수가 없었다.⁴⁴⁾

인도인이 되었다는 시관의 언급은 그녀의 정체성 변화를 의미하는 한편 그녀의 신분이 중국인과 인도인이라는 이질적인 것의 혼종 상태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나아가 그것은 시관이 앞으로 머무르게 될 인도사회에서 이질적 존재로 살아갈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시관은 ‘여자 로빈슨’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녀의 처지는 근대적 남성이 식민지를 개척하는 상황과는 같을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시관의 희망과 달리 그녀 앞에는 불안한 미래가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그녀의 불안한 상태는 이주자 정체성과 함께 성별 정체성으로

43) 네스트로 가르시아 칸클리니 지음, 이성훈 옮김, 《혼종문화: 근대성 넘나들기 전략》(서울: 그린비, 2011), 19쪽.

44) 許地山, <商人婦>, 32쪽.

인해 더욱 분명해진다. 쉬디산은 근대성 담론을 여성 주인공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지만, 시관이 자신의 여성성을 부정하는 모습은 식민담론의 남성적이라는 성별적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가능하다. 시관이 되고 싶어하는 ‘여자 로빈슨’은 그녀가 처한 현실에서 이루기 힘든 목표가 될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그녀가 재현하는 식민담론과 근대성 담론의 논리가 모순된 것임을 보여줄 것이다. 게다가 화자 ‘나’가 시관의 부탁으로 옛 고향집을 찾아가서 발견하는 것이 폐허와 어머니의 부재라는 사실은 이 작품에서 식민담론의 양가성을 찾아볼 수 있게 하는 계기 역시 마련해준다.

배가 부두를 떠날 때 그녀는 땅에 서서 손수건을 흔들며 나를 전송했다. 그 진지한 표정을 나는 영원히 잊지 못한다. 집에 도착한 지 한 달도 안 돼, 흥젠으로 갔다. 감람나무 아래 낡은 집은 오랜 등나무가 가득 막고 있었다. 틈새로 들여다보니 섞은 위패가 탁자 위에 놓은 게 희미하게 보였다. 어디에도 어머니는 없었다!⁴⁵⁾

시관과 고향인 중국을 연결시키던 마지막 끈인 어머니의 부재는 혼혈아들의 존재, 중국문자에 대한 무지와 함께 시관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더욱 부각시킨다. 그러므로 시관은 인도에 정착한 채 이주민 신분으로 살아갈 것이며, 이질적인 존재, 타자로 남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비록 식민지 하 인도에서 서구 제국의 조력자인 교사의 역할을 담당한다 하더라도 이 역시 그녀가 처해 있는 불안을 해소해주지는 못할 것이다. 쉬디산은 영국 식민지라는 현실을 작품 속에서 삭제함으로써 시관의 ‘여자 로빈슨’이 가능할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 현실은 중국인 여성 이주자인 시관으로 하여금 더 많은 시련을 겪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시관이 추구하는 ‘여자 로빈슨’은 식민지 하 인도라는 상황 속에서 내적 분열과 불안정 및 불가능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서구 식민지 하 인도를 배경으로 그 속에 다양한 이주민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지배/

45) 許地山, <商人婦>, 32쪽. 마지막 문장은 ‘哪裡還有一位良姆!’임.

피지배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명확한 분리를 위한 논리적 근거는 시관과 같은 특수한 상황들로 인해 파편화된다. 시관의 상황을 통해 살필 수 있는 정체성이 갖는 유동성과 혼종성은 '순수한 문화들 간의 구분을 상징해 왔던 식민담론'으로 하여금 자아와 타자로 세계를 나누는 견고해 보이는 경계가 명백하게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알려준다.⁴⁶⁾ 또한 시관의 여성이라는 성별 정체성과 이주민 정체성은 작품으로 하여금 식민담론이 보편화시키려는 자아/타자 간 구별 및 이를 근거로 하는 서구의 우월성이란 보편적인 것이 아니며 '속에 스스로를 부정할 수 있는 가능성인 양가성'⁴⁷⁾을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든다.

4. 결 론

본고에서 살핀 쉬디산의 <상인의 아내>는 당시 보편성과 합리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된 근대적 자아 확립의 서사가 여성 이주민을 주인공으로 하는 서사 속에서 어떻게 특정한 맥락과 연결되고 있는지를 살피게 해주었다. 작품은 근대 지식인인 쉬디산의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여주인공인 시관을 통해서 표현되며, 그 양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만든다. 작품의 드러난 서사는 한 여성의 고난 극복과 자아실현에 관한 서사이지만 문학적 재현이 선택하거나 생략한 내용은 근대 지식인 쉬디산이 서 있던 담론 세계의 상황을 이해하게 만든다. 즉, 동남아시아의 현실과 쉬디산의 문학적 재현 사이의 관계를 통해 작품이 갖는 식민담론 및 근대성 담론과의 연관성을 살필 수 있다는 것이다. 문학적 재현이 강조하거나 생략하는 것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 '텍스트가 표현하고 있는 역사 속의 위치 및 의미'⁴⁸⁾를 이 작품의 경우 고대 제국인

46) 데이비드 허다트 지음, 조만성 옮김, 《호미 바바의 탈식민적 정체성》, 30쪽.

47) 데이비드 허다트 지음, 조만성 옮김, 《호미 바바의 탈식민적 정체성》, 8-9쪽.

48) 존 맥클라우드 지음, 박종성 외 편역, 《탈식민주의 길잡이》(서울: 한울 아카데미, 2016).

중국의 변화하는 위상과 근대 중국 지식인들의 당시 현실에 대한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⁴⁹⁾ 작품은 동아시아 근대성 담론을 난양서사와 이주민 서사라는 지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형태로 표현함으로써,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관계에 일어나고 있던 '역사적 변화의 순간'을 읽어낼 수 있는 작품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작품은 스수메이가 주로 중국과 난양과의 관계에서 찾아냈던 식민담론의 양상이 결국 불안한 논리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있게 하는데, 그것은 여주인공 시관을 통해 드러나는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정체성 형성의 과정과 연관된다. 그녀의 변화하는 신분을 통해 드러나는 사실은 정체성이란 '어떤 문화, 언어, 역사 안에 자리 잡고 위치지어지는 것'이자 보편적이거나 절대적이 아닌 '국면적 특수성을 요구'⁵⁰⁾하는 것으로, 식민담론에 있어 자아/타자 간의 분명한 구별과 그것의 고착과 영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보편적인 의미를 갖는 정체성이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게다가 작품은 시관 정체성의 유동하는 과정을 통해 문화적 뒤섞임에 바탕한 혼종화를 드러냄으로써 '모든 형태의 정체성 내에 있는 원래의 섞여 있음'을 살피게 한다.

본고에서 살핀 <상인의 아내>를 중심으로 하는 쉬디산의 난양서사는 20세기 초 근대 중국 지식인이 난양을 어떻게 상상했으며, 그것이 작품 속에 어떻게 재현되었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제국 중국이 상상한 주변이자 타자인 난양에 대한 묘사는 서구 식민담론의 또 다른 모습으로, 중국의 근대성 담론과 함께 난양에 대한 인식의 기저를 이루면서 아시아 세계에

65쪽. '역사적 맥락이 어떻게 문학 텍스트 속의 의미 생산에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문학적 재현 자체가 문학 텍스트의 역사적 순간에 영향력을 갖는지를 드러냄으로써 텍스트를 역사 속에 위치시킬 수 있다.'

49) 빌 애쉬크로프트·팔 알루와리아 지음, 윤영실 옮김, 《다시 에드워드 사이드를 위하여》, 132-134쪽. '지식이란 항상 재현의 문제'이며, '모든 재현은 재현자의 언어와 문화와 제도 속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기에 '재현은 그 역시 하나의 재현인 진리 이외의 많은 것들과 연결되고 뒤섞이고 얽혀있다'.

50) 제임스 프록터 지음, 손유경 옮김, 《지금 스텔러트 홀》(서울: 엘피, 2006), 224쪽. 재인용.

일어나던 당시의 변화를 살피게 한다. 더불어 시관 정체성을 통해 드러나는 유동성과 혼종화는 식민담론이 식민지배자의 지배를 위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한편, 그 같은 논리와 이해가 갖고있는 모순된 양상 역시 드러냄으로써 작품에서 식민담론의 양가성을 읽어낼 수 있게 한다.

< 參考文獻 >

- 許地山, 岳凱華 盧付林 編, 《許地山作品精選》, 武漢: 長江文藝出版社, 2003.
- 네스트로 가르시아 칸클리니 지음, 이성훈 옮김, 《혼종문화: 근대성 넘나들기 전략》, 서울: 그린비, 2011.
- 데이비드 허다트 지음, 조만성 옮김, 《호미 바바의 탈식민적 정체성》, 서울: 엘피, 2011.
- 빌 애쉬크로프트·팔 알루와리아 지음, 윤영실 옮김, 《다시 에드워드 사이드를 위하여》, 서울: 엘피, 2005.
- 밀턴 오스본 지음, 조홍국 책임 번역 감수, 《한 권에 담은 동남아시아 역사》, 서울: 오름, 2000.
- 사라 밀스, 김부용 역, 《담론》, 서울: 인간사랑, 2001.
- 스튜어트 홀, 임영호 편역, 《문화, 이데올로기, 정체성》, 서울: 컬처북, 2021.
- 에드워드 사이드 저, 김성근·정정호 옮김, 《문화와 제국주의》, 서울: 도서출판 창, 2021.
- 임채완 등 지음, 《화교 디아스포라의 집단적 기억과 재영토회》, 경기: 북코리아, 2014.
- 제임스 프락터 지음, 손유경 옮김, 《지금 스텐더트 홀》, 서울: 엘피, 2006.
- 존 맥클라우드 지음, 박종성 외 편역, 《탈식민주의 길잡이》,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16.
- 필립 A. 쿤 지음, 이영옥 옮김, 《타인들 사이의 중국인 — 근대 중국인의 동남아 이민》, 서울: 심산, 2014.
- 호미 바바 지음, 나병철 옮김, 《문화의 위치》, 서울: 소명출판, 2016.
- 黃修己 저, 고대중국어문연구소 역, 《중국현대문학발전사》, 서울: 범우사, 1992.
- 陳平原, <論蘇曼殊, 許地山小說的宗教色彩>, 《陳平原小說史論集·上》, 河北: 河北人民出版社, 1997.

成仿吾, <<命命鳥>批評>, 《成仿吾文集》, 齊南: 山東大學出版社, 1985.

史書美, 《反離散: 華語語系研究論》, 臺北: 聯經出版社, 2017.

李 朦, 孫良好, <許地山筆下的南洋形象——以<命命鳥><綴罔勞蛛>爲中心>, 《溫州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5年 第18卷 第5期.

顏 敏, <異域話語的重新建構——許地山的南洋敘事及其意義>, 《中國比較文學》, 2013年 第3期.

< Abstract >

A Study on Xu Dishan's Colonial Discourse in *The Merchant's Wife*

Sung, Okrye

The Merchant's Wife(商人婦) which Xu Dishan(許地山) released in 1921 presented his creative peculiarities. His works were called religious narrative or female narrative, but also called Nanyang narrative on Southeast Asia. It makes us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Southeast Asia at the time and its transition under expansion of Western modernization and imperialism. Singapore and India, which were the background of this work, were colony of UK in the early 20th Century. Singapore as a kind of intermediate trade area under control of UK was the concentrated area of Chinese immigration as well as the developed region of commercial and trade. Shi Shumei史書美 argued *The Merchant's Wife* showed some kind of ethnic othernization through lives of two Chinese migrants in the work. Lin Yinqiao林陰喬 who is the heroine and narrator Xiguan惜官's husband, headed Singapore in order to recover his financial collapse. This narrative was similar to those of English fictions which some British characters left UK for economic recovery or fleeing overseas due to crime. In these narrative, Singapore and India were kinds of compensatory colonies. This is one of the othernizat mentioned above.

And the other one came out from the distinctive expression and description. The former was the discriminatory expression, ‘過番(to move to barbarian territory)’ indicating his moving to Singapore. The latter was Xiguan’s descriptions of the Malaya woman who was husband’s mistress. She was described as ugly and immoral. These were two kinds of otherization, Shi Shumei found out in the work.

But the colonial discourse in *The Merchant’s Wife* was much more complicated. The work reminds us of the ambivalence of colonial discourse inherent in Western imperialism. Literary representations and exclusions of the Xu Dishan’s works revealed how he perceived reality. I argue he intentionally excluded real lives of immigrants to Singapore. Lin Yinqiao was a successful merchant and Xiguan finally became a teacher through lots of adversities. They were intermediate status in the colony. It showed us that Chinese people had sense of resistance against Western imperialism and its expansion, and reversely, desired to reaffirmed their positions by accomplishing Western modernization, clinging to the position of their ancient empire. The Xiguan’s identity flew and changed in the work, and its process directly revealed the ambivalence of colonial discourse. Xiguan, as an illiterate Chinese woman, was sold into concubine for an Indian man to give birth to a mixed raced son, but finally learned to write with christian neighbor’s help to acquire the status of teacher. She had no hometown to return and her ex-husband was completely disappeared. And in the end, she declared she had become an Indian. Her status change showed the liquidity rather than the stability of identity. She learned Christianity and modern Western knowledge, which were effective weapons of the imperialism, to acquire the identity of teacher, but the heterogeneous and hybrid identity of Asian immigrants showed the impossibility of a fixed identity. The colonial discourse conclude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oneself and others was fixed and unchangeable, but it turned out to be false in through Xu Dishan’s narratives in the work.

Key Words: Xu Dishan, *The Merchant's Wife*, Nanyang narrative, Discourse of modernity, Colonial discourse, Identity, Representation, The ambivalence of colonial discourse, Hybridity, Immigrant

투 고 일: 2023. 05. 30.

심 사 일: 2023. 05. 30. - 06. 24.

게재확정일: 2023. 06. 26.